

일라이저 - 11번

첫 번째 실수

Jeff Pippenger

2023-10-15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에 일어난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은, 에브라임의 북왕국 열 지파가 시작될 때의 여로보암의 반역과 예언적으로 일치한다. 이 거룩한 역사들은 1863년 재림주의의 반역을 예표한다.

물론 1863년에 대한 다른 증거들도 있지만, 아론과 여로보암 왕은 1863년의 역사 위에 포개지는 증거들을 제공하며, 그 모든 역사들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의 마지막 날들 동안뿐 아니라 은혜의 시한이 마감될 때까지, 곧 개신교의 뿌인 십사만 사천의 움직임을 보여 준다. 그 역사들은 또한 여섯째 왕국에서 공화주의 뿔의 병행 역사도 다룬다.

세상 끝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진리가 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첫 번째 실수다. 일요일 법 위기 동안 기치로 높이 들려지는 백성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표한다는 성경적 증거는 없다. 이렇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실수다. 세상 끝에 기치로 세워지는 무리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에 의해 쫓겨난 자들로 이루어진다.

그가 민족들을 위한 기치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을 것이다. 이사야 11:12.

기치가 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이다.

그의 말씀 앞에 떨며 있는 자들아,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내쫓은 너희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라' 하였으나, 그가 너희의 기쁨을 위하여 나타나실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사야 66:5.

기치가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쫓겨난다. 그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인데,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가 성경 예언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누구를 대표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열 처녀의 비유는 재림주의를 대표한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는 또한 재림교인들의 경험을 보여 준다. 대쟁투, 393쪽.

그 비유는 재림주의 초기에 성취되었고, 끝에서도 문자 그대로 다시 성취된다.

나는 종종 그중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였던 열 처녀의 비유를 언급하곤 한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이 있으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세상 끝날까지 현재의 진리로 계속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8월 19일.

깨어나 기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미련한 처녀들은 라오디게아인들이다.

"미련한 처녀들로 상징되는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 상태라고도 불린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로 묘사되기도 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싸움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교회와의 싸움이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아니요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보라, 내가 그들로 하여금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을 알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3:9

화이트 자매는 큰 실망 이후에 나온 맨 처음 출판물에서 이 구절을 다룬다.

당신은 (요한계시록 3:9)에 나오는 성도들의 발 앞에 경배하는 자들이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과 의견을 달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류가 배교한 자칭 재림신자들이며,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히 욕되게 한' 자들임을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참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아직 오지 않은 '시험의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구원을 잃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심령의 비통함에 압도되어 성도들의 발 앞에 절할 것입니다. 작은 무리에게 보내는 말씀, 12.

이사야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후에 사용하신 포도원의 노래가 처음으로 언급된다.

이제 나는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그가 자기 포도원에 대하여 지은 노래를 부르리라. 내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우 비옥한 언덕에 포도원이 있었도다. 그가 그것을 울타리로 두르고, 그 돌들을 골라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며, 그 안에 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도다. 이제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 포도원에 내가 해 주지 않은 것 가운데, 더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포도가 맺히기를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사야 5:1-4.

구약이든 신약이든 비유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일으키신 교회가 자신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한다. 이사야 5장에서 그 비유의 결론 부분에, 포도원에 내릴 징벌이 밝혀지고, 더불어 열방을 향해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는 약속도 주어진다. 분명히 포도원은 그 깃발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그의 백성에게 타올라 그가 그들을 치시려고 손을 내미시매 산들이 떨어지고, 그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에서 찢겨졌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도 그의 진노는 돌이켜지지 않았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다. 또 그가 멀리 있는 민족들을 향해 기치를 들고 땅 끝에서 그들을 향해 휘파람을 부시리니, 보라, 그들이 신속히, 아주 빨리 올 것이다. 이사야 5:25, 26.

예수께서 나중에 그 노래를 비유로 노래하셨을 때, 그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단호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심고, 그 둘레에 울타리를 두르며, 그 안에 포도즙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 그것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그는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소작농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소작농들이 그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다.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소작농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였다. 이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리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소작농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비참하게 멸하고, 제때에 그 열매를 바칠 다른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그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 누구든지 이 돌에 부딪치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들을 듣고, 그가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마태복음 21:33-45.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높이 들린 기치가 아니다. 마지막 때에 옛 이스라엘로 예표된 포도원은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지만, 첫 열매에 해당하는 열매를 맺는 한 민족이 있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십사만 사천이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러진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4.

기치로서 그들은 마지막 추수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포도원 주인에게 쓰임받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모세의 '일곱 때'의 기초석을 거절한 포도원이다. 그때부터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기치는 '이새의 뿌리'가 될 것이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은 예수께서 그의 역사 속에서 시비를 걸던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신 최후의 진리를 대표한다. 이는 알파와 오메가의 원리를 상징하는데, 그 원리는 고대와 현대 이스라엘의 불충한 농부들이 이해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들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방인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리니,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11:10.

화이트 여사와 제임스 화이트는 1856년까지 그 운동이 라오디게아 상태가 되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렇다면 그녀가 그 운동이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내는 기별을 언젠가 받아들였다고 밝힌 때가 있었는가? 그녀는 결코 그렇게 밝힌 적이 없다. 우리가 첫째로 범한 실수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역사 속을 지나오면서 승리해 온 교회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상은 정반대다. 그 첫 번째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음을 가르치는 예언적 사실들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게 된다. 예를 들어, 화이트 여사는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역사가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경험과 역사를 보여 준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한다. 그리고 그녀는 현대 이스라엘의 본보기로 고대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같은 사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전적인 진술을 종종 함께 인용한다.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일어났으며, 또한 세상 끝이 이른 우리를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앞선 열 구절을 요약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다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기 때문이라.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엎드러졌느니라. 이제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 몇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되기를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하였느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이 행한 것 같이 우리가 음행하지 말자. 그리하여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느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이 그리스도를 시험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리하여 뱀들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그들 중 몇 사람이 원망한 것 같이 너희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1-10.

바울과 화이트 자매는 고대 이스라엘을 승리하며 의로운 백성의 본보기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정반대다. 바울은 처음 열 절을 11절에서 요약하고, 그 다음 절에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볼 자들에게 전하려는 교훈을 밝힌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12.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면서도 매 걸음마다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결국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의 본보기다! 재림교인들은 고대 이스라엘에 관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의도된 경고가 그들의 라오디게아적 눈먼 상태를 뚫고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일은 드물다. 그들은 화이트 자매가 교회를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규정한 구절들을 인용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실제 상태를 덮어 가리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은 그 눈동자, 곧 자신의 눈동자와의 관계를 매우 분명하게 요약하셨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내어진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 모으려 하였으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게 버려진 채로 너희에게 남겨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하고 말하는 때가 이를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3:34, 35.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정말로 시작을 통해 끝을 보여 주시는가? 고대 이스라엘은 실제로 현대 이스라엘을 보여 주는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전반에 걸친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의 혈통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한다고 믿었고, 따라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될 수 없다고 여겼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성전이라고 주장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집의 문에 서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포하여 말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오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겠다. "이것들은 여호와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짓된 말들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7:1-4.

세레 요한도 바로 그 같은 망상을 강조했다.

그들은 요단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며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또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일으키실 수 있다. 이제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베어져 불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3:6-10.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다'라는 표현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는 주장으로 상징되는 재림주의 안에 있는 바로 그 그릇된 이해가 라오디게아의 눈멀음의 주된 발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 위해 사자들을 보내신다. 사람이 이것들을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하며, 또한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여 그가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행해야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일점일획도 가볍게 여기거나 불경스럽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어기는 자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구속주께 반역하여 어둠의 권세자의 깃발 아래 서 있다. 그들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기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우리는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하고 말하면서도, 그분의 성품을 곡해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기준을 세운다. 그들의 본보기는 사람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의 영향력은 부패시킨다. 그들은 의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세상의 빛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시는 빛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큰 배신을 하나님께 보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자들은 거짓 이정표를 세우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한다. 그들은 순수한 원칙들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은 왜 유대 민족에게 황폐가 임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들은 큰 빛과 풍성한 축복과 놀라운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무에 불충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포도원을 성실히 돌보지 않았고, 그 열매를 그분께 바치지도 않았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였고, 그러므로 재앙이 그들을 덮쳤다." 원고 발표집, 제14권, 343-345.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초기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항상 그분의 택한 백성일 것이라고 믿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분을 공경하기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분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고도 믿었다. 예언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 이혼당하기까지 그분의 택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런 백성이었던 적은 결코 없었다. 택한 백성의 의는 그들이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 고대 이스라엘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주된 본보기이지만, 세상의 끝에 그들이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받아들이면, 고대 이스라엘에게서와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의 눈먼 상태가 드러난다. 재림주의는 그와 반대되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세상 끝의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가 은혜의 시한의 마감에 가까워질수록 라오디게아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는 더욱 엄숙하고 직설적이어야 한다. 그 거짓된 전제를 진리를 위해 제쳐 두지 않는다면, 아론과 여로보암, 그리고 1863의 사례들이 전통과 관습이라는 망토 아래 가려지게 된다. 이제는 은혜의 시한의 마감에 너무 가까워져 더 이상 그 망토 아래 숨을 수 없다.

심판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였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자신의 행위가 드러나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3:19-20.

재림주의의 배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추적되어 왔다. 그것은 예언적 현실이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고대 이스라엘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배교의 역사이며, 그럼에도 성경과 예언의 신은 고대 이스라엘이 현대 이스라엘의 모형임을 가르친다. 슬픈 일이지만, 지금 이때만큼 이 진리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했던 적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봉인이 풀리고 있는 것은, 재림주의의 역사가 개신교의 뿌로서 공화주의의 뿌의 역사와 병행한다는 사실이다. 두 뿌는 서로에게 두 번째 증인이 되며, 그 증인들 가운데 하나를 올바로 보기를 거부하면 동시에 다른 증인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

아론과 여로보암, 그리고 1863의 선들은 현대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을 가리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공화주의의 뿌의 시작도 가리킨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이다. 미국이 먼저 일요일 법을 제정하고, 그런 다음 전 세계가 똑같이 하도록 강요한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모범을 따를 것이다. 비록 미국이 앞장서더라도, 같은 위기가 온 세계 각처에 있는 우리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증언, 제6권, 395.

일요일 법 위기와 연결된 예언적 진리들은 미국의 역할과 분리될 수 없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며, 이사야 23장에 따르면 예언적 기간 70년 동안 통치한다. 그 짐승은 두 뿌를 가지고 있다. 그 두 뿌의 관계와 관련된 진리들은 이제 봉인이 풀려 드러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의 시작을 사용해 그 끝을 보여 주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봉인을 푸신다는 것을 이해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그렇다.

미국은 1798년에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으로 시작했으며, 이어지는 65년 동안 함께 역사를 지나게 될 두 뿌가 보려는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맥락 속에 자리 잡았다. 이사야 7장에 제시된 65년은 기원전 742년에 시작되어 기원전 677년에 끝났다. 1798년부터 1863년까지 그 65년이 반복되었다. 그 65년은 두 뿌 모두에서 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1863년까지 이사야서 23장의 예언적 '한 왕의 날들'의 시작 기간이 끝났고, 그로써 '한 왕의 날들'의 끝 기간을 위한 예언적 이정표들이 세워졌다. 이사야서 23장의 상징적 칠십의 끝맺음은 처음 65년으로 드러난다. 1863년부터 1989년의 끝의 때까지는 밀려 운동에서 비롯되어 14만 4천의 운동으로 끝나는 라오디게아 상태의 재림교회의 기간이다. 끝의 기간을 이해하려면 시작의 기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재림주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 시작이 모세의 맹세를 거부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맹세는 재림주의와 미국의 시작과 끝을 대표하는 바로 그 65년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인데, 이 글은 하나의 예언적 사실을 확립하려 노력해 왔다. 그 사실은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에 의해 봉인이 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항상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린다면, 당신은 논리적으로 재림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재림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공화주의의 별을 올바르게 식별할 수 없다.

그들이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움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속에 얽혀 들고 거기에 굴복한다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그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에서 돌아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속담대로 그들에게 일이 이루어졌으니, 개는 자기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씻긴 암돼지는 다시 진창에서 뒹군다. 베드로후서 2:20-22.